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김덕목, 민속원, 2016

이경래*

민속기록지적 렌즈로 커뮤니티 역사를 담아내기

김덕목의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는 기록학 전공자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민속기록학’ 영역을 다루고 있다. 본래 민속학을 전공한 저자는, 민속학과 기록학의 장점을 결합한 융합학문으로서 민속기록학이란 새로운 학적 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김덕목은 자신이 보는 민속기록학이 가족, 마을, 지역사회, 현대도시 사회의 각종 공동체를 기록하고 보존, 활용하기 위한 최적화 전략이자 학문적 유용성에 기대고 있다고 본다. 즉 그의 민속기록학은, 기록학계에서 꾸준히 모색했던 공동체 기반 기록의 연구방법론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민속학계 내부 민속기록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실천방안 모색을 위해 기록학적 연구방법론의 요구가 상호 결합되어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민속기록학을 통해, 민속학에는 기록학적 사유의 유입과 이를 통해 새로운 인식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기록학계에는 공공기록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 한신대학교 기록학 강사.

저자가 글의 서두에서도 밝히듯, 그의 책은 민속기록학의 이론과 실천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지난 수년간 발표해 온 논문들을 다듬어 모은 단행본 콜렉션에 해당한다. 이런 연유로 인해 책을 읽다보면 저자가 쌓은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공동체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체득한 저자의 현장 경험들이 중요한 지적 자원으로 남아 곳곳에 스며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기록학이란 이론이자 현장 분석의 방법론을 통해서, 저자는 살기 좋은 공동체, 인문학적 정신이 풍부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학문적 모착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를 해석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축적된 자료를 생활사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인 민속학에서 기록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되새김 하려 한다.

‘민속지’ 대 ‘민속기록지’적 기록

저자 김덕목은 민속학과 기록학의 학문적 최대치를 끌어내 상호 접목하기 위해 ‘민속기록지’적 접근 방법을 독자들에게 제안한다. 민속학이라는 이론적 배경과 함께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정리·기술이라는 기록학적 방법론을 독창적으로 접목하여 제안하고 있는 ‘민속기록지’의 제안은 여러 현장연구를 장기로 삼는 연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유인을 지니고 있다. 그가 언급하는 ‘민속기술지적’ 방법이란, 흔히들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 많이들 사용해왔던 민속지(에쓰노그래피)적 일반화된 방법론을 벗어나 좀 더 사안의 기록에 방점을 두고 커뮤니티 현장에서의 꼼꼼한 관찰과 기술을 통해 만들어낸 구체적인 보고서나 기록지를 뜻한다. 즉 민속지가 상세한 사실기록 대신 이것에 대한 해석이나 비평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민속기록지는 기록을 통해 정확한 1차 사료를 도출하고 이용자에게 가급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그것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자 한다. 책의 저자는

공동체, 마을기록의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 방법을 이와 같은 민속기록 지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하면서,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찾기를 행할 것을 역설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민속기록학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 기록화와 아카이브 정립,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꼽고 이에 기초해 상생할 수 있고 사람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공동체 설계를 그의 학문적 지향점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민속기록학과 지역공동체 아카이브』는 크게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민속기록학 입문’에서는 새로운 학문영역으로서 민속기록학의 학문적 정체성과 등장배경, 학문적 쟁점과 방법론, 그리고 민속기록학에서 중요한 연구 활동인 민속기록지와 민속기록을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생산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어서 2부 ‘지역아카이브의 세계’에서는 민속기록학을 실제 시·군 단위에서 지역사례와 접목한 논의를 중심으로 지역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록관 설립을 위한 제언들과 지역문화의 기록·보존·활용을 시·군 단위에서 기록관의 업무와 연관시켜 논의하고 있다. 또한 향토문화전자대전 ‘향토문화백과’의 개선을 위한 민속기록학적 방향과 향토문화의 기록·보존·활용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광명시 ‘동제’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3부 ‘마을아카이브의 세계’에서는 마을기록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현실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마을기록관의 설립과 운영을 서울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향토문화전자대전에 포함된 ‘디지털마을지’의 제작방향에 대해 검토로 글을 맺고 있다.

커뮤니티 기록의 ‘아마추어리즘’ 탈피하기

저자는 책에서 민속기록학의 정의와 범주, 방법론에 대한 전반적인 학문적 이해뿐만 아니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기록화 사

업의 맹점들을 지적하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 문화재청의 한국 민속종합조사사업이나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기록화사업,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생활문화 기록화사업, 각 지자체의 지역문화 기록화 사업 등에서 '아마추어리즘'이 난무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들이다. 저자 김덕묵은, 지역 기록화 사업에 있어서 이와 같은 비체계적인 기록화 방식이나 전략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영역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화에 있어 민속학적 연구방법론의 적극적 수용뿐만 아니라 민속기록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기획을 강조한다. 덧붙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적 인적 자원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기록학계에서는 민간 영역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공공기록물 중심의 근대 기록학적 접근의 한계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이나 공동체 아카이빙,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구술사, 일상사 연구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기존 기록학적 전통에 덧붙여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과 방법론적 접근이 필요했던 것이 사실이다.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기적 요구에 직면해 그의 민속기록학적 연구는, 적어도 근대 기록학의 시야를 확장시키면서 새로운 지역 기록화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중앙에서 변방과 마을로, 제도에서 시민과 민간으로, 주류에서 비주류와 변경으로, 집단에서 코뮌과 개인으로 등등 내러티브들의 축을 자유롭게 횡단하려는 독자들에게 이 저작은 아래로부터의 기록학적 상상력을 독려하기에 꽤 충분하다고 본다.